

이기신 하나님만이 『다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보통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3면에 이어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니가 하나님의 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란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어야 선물이 되는 것이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준다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쥐 봐야 피해만 입히는 거죠? 그런고로 죽을 사람에게 영생할 수 있는 영을 줘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영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영생의 영이라는 건 사망의 신인 마귀를 죽여 없앨 수 있는 강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말세가 될 때까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이루는 주인공이 이긴자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모조리 죽여서 없애버리면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 되고로 사람 세상이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세라는 것은 곧 말(末)자, 인간 세(世)자,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세라고 하는 고로 말세가 안식일이요, 천당이라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구세주의 얼굴과 똑같이져야

극락세계를 만드는 주인공이 와야 극락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극락세계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나 있는 것이지, 인간 속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당은 어떠한 국부적인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펼쳐져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말했죠? 인간들은 다 없어지는 고로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의 얼굴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고 어디를 봐도 다 구

속한 주와 같다고 한 것은 전부 구세주의 얼굴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구세주의 분신의 영이 인간 속에 다 들어가서, 마귀를 쫓아내어 죽여서 없애 버리고 마귀가 앉았던 자리에 구세주의 분신이 들어가 앉아 있어야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당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신 하나님만이 다시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보통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학박사 아니라 신학박사 할아버지라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방송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코를 쥐고 쥐구멍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영생의 영인 고로 생명의과일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고로 생명의과일이 감춰던 만나요, 감춰던 만나가 이긴자 구세주의 영인 감로이슬성신인 것입니다.*

2001년 6월 27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생존한다”

생각이 흐려지면 피가 썩는다. 나를 의식하면 피가 썩는다.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이 사람이 선포한 새로운 말씀을 과학자들이 앞으로 실험해 볼 것이다. 첨단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헤매는 미지의 문제를 여기서 풀어 주고 있다. 소련의 과학자가 고주파 촬영기로 사진을 찍어보니 사람 몸에서는 강한 광선이 나오고 나뭇잎에서는 약한 광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인지 연구를 거듭했지만, 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사람의 몸에서 광선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며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와 모든 만물에 스며 들어가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골반, 허추,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척추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하고 척추의 기능을 잡아주는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몸 안의 작은 근육(복횡근, 다열근, 골반저근)을 강화시키는 요가 동작들을 수련해 보실까요 ^^



동작①

동작①: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우고 골반을 서서히 들어 올린다. 10~20초 유지. 5회.



동작②

동작②: ①번 자세에서 골반을 더 위로 올리면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반대쪽 무릎과 평행할 때까지 들어 올린다. 10~2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③

동작③: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발을 가슴 앞으로 접고 양 손바닥을 어깨 아래 바닥을 짚는다. 될 수 있으면 골반이 바닥에 닿도록 하고, 상체는 꼬리뼈부터 머리 끝까지 길게 늘려준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④

동작④: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어깨와 평행하게 세우고 양쪽무릎을 쭉 편다. 골반을 들어 올린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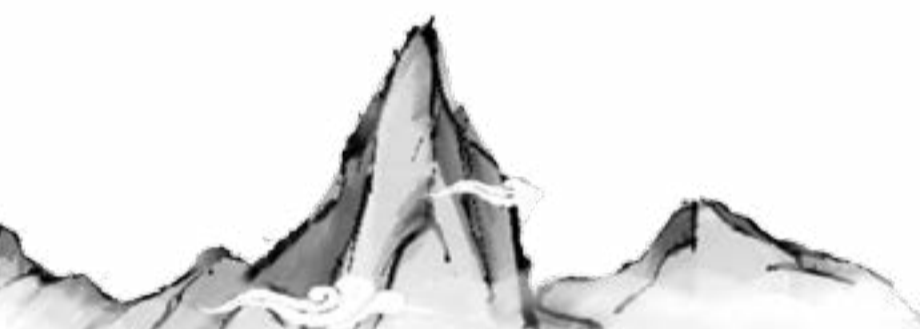


격암요록 新해설 수정판 제67회

불사영생(不死永生)의 진리를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급히 전하소

格菴歌辭(四) 격암가사

眞僧下山急破(진승하산급파)하소
佛道大昌何時望(불도대창하시망)고
都是仙中人間事(도사선중인간사)
自古及今初樂大道(자고금초락대도)
우리南鮮大昌人(조선대창인)이
私心(사심)부디두지말고
面村村舍(면면촌촌합합) 숨字(합자)
和氣春風時來事(화기춘풍시래사)를
無疑君子大覺年(무의군자대각년)을
家家面面郡郡道道(가가면면군군도도)
時來自知(시래자지)다알리라



不遠千里急傳(불원천리급전)하소
저의先塋父母靈魂(선영부모영혼)
다사사라 相逢(상봉)하리
貧賤困窮無勢者(빈천궁공무세자)야
精神(정신)차려 海印(해인)알소
무궁조화환량업네 너의先(선)영신명달은
不知(부지)알기탄식이라 영웅호걸
한인군자 대판대작부귀자야
도매금에너머가리
自下(자하)달(상) 理(이치)로서
우명자가 先來(선래)로다

라, 아래에 있는 힘없고 어리석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힘 있고 유식한 자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치로서 어리석은 백성이 먼저 이 길을 찾아오느니라.

布德天下大急時(포덕천하대급시)를
엄동설한긴긴밤이 하도 안새대니
鷄鳴無時(계명무시)날이새어
日出東方(일출동방)발가갸네
億兆(억조)창생경근심 무서움다날이새니
夜鬼發(야귀발)등주저주저 마귀야어디갈니
회개(회개)자책사람도라
至公(지공)무사하나님은 지(불)고좌약다오
라네
七七(칠칠)總總(총총)死境(사경)에
數種(수종)三三(삼삼)豐豐(풍풍)성(성)일세
三年(삼년)不雨(부우)不耕(부경)대(대)불경(불경)지에
無數(무수)大豐(대풍)무국대(무국대)풍(풍)일세
마음(마음)아어디갈니 간곳마다
凶年(凶年)凶凶(흉흉)자 무국(무국)천지(천지)야표로
다

진짜 스님들은 비 진리의 범당을 한시 바빠 깨뜨리고 하산하소. 세상일이 이러 할진대 어느 때에 불도가 크게 번창하길 바랄 것인가? 신선이 되려 함도 다 인간사(人間事)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상 처음으로 천당극락 갈 수 있는 무극대도(無極大道)가 나왔으니 장차 크게 번창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디 사심(私心)을 두지 말고 전국의 면이면면, 촌이면 촌이 다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가 오리라. 도를 찾는 군자들이 의심 할 바 없이 정도령의 불사영생의 진리를 크게 깨닫는 때가 오게 되면 온 세상의 집집마다 면면마다 군군마다 도도마다 모두 때가 이르러 자연히 다 알게 되리라.

하늘이 엄한 명령으로 천벌을 내릴 즈음에는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부귀한 자, 문장가, 재주 있는 선비들이 천시(天時)에 따라 오는 운수를 그리고 모르는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이치를 모르고서 가난하고 천한 자를 노예처럼 보는구나. 정도령이 펴는 영생의 진리를 시급히 전할 때이니 약전고투 이기어서 천리를 멀다않고 급히 전하소. 저의 선영부모(先塋父母)의 영혼이 다시 살아 서로 만나리라.

天罰嚴命(천벌엄명)나릴 世上(세상)
家家人人(가가인인) 다서려라
富貴文章才士(부귀문장재사)더러
時來運數不通(시래운수불통)인가
自下達上(자하달상)모르고서
貧賤示知(빈천시지)노예로다
福音傳道(복음전도)급급(급급)시러
약전고투이기어서

빈천하고 곤궁하고 힘없는 자들이, 정신 차려 해인을 알아보소. 해인은 무궁조화가 한량없느니라. 너의 선영 신명들은 너희들이 해인을 모를까 탄식이로다. 영웅호걸, 현인군자, 고관대작, 부귀자(富貴者)야! 도매금(道賣金)에 넘어가리

정도령이 천하에 널리 사람이 죽지 않는 대(大)도덕을 펼치게 되는 아주 급한 시기를 맞아 엄동설한의 긴긴밤이 하도 안 새대니 시(時)도 때도 없이 달이 울어 날이 새니 해가 동방에 돌아 사방이 밝아왔구나.

억조창생이 엄동설한의 긴긴밤을 근심 걱정하고 무서워하며 지내다가 마침내 날이 새니 그간 발광(發狂)하며 날뛰던 야귀(夜鬼)가 주저주저하는구나. 마귀야 어디 도망갈 데가 있느냐? 회개하고 스스로 누워쳐서 사람이 되어라. 지극히 공평무사(公平無私)하신 하나님은 지난 죄를 따지지 않고 다 오라고 하시네. 사십구 일 동안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화운으로 삼풍감로 해인을 먹기만 먹으면 신선이 되리라. 삼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밭을 갈지 못한 땅에서도 세상 곡식 없이도 대풍(大豊)이 드는 심심일세. 마귀야 어딜 가겠느냐? 가는 곳마다 흉년(凶年) 흉자(凶字)이니 먹을 양식이 없어 천지가 다 굶어 죽을 뿐이로다. 즉 마귀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내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흉년 들어 굶어 죽는 이치와 같은 세상이 된다는 뜻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참진리 | 시천주(侍天主) 전도 문답 [40]

질문: 수운 최재우 선생이 창시한 동학의 근본사상은 인간 속에 내재하는 하나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시천주(侍天主) 사상입니다. 승리제단에서는 도매금 54궁 수운에서 63궁 화운으로 이어지고 화운에서 72궁 목운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81궁 금운 조희성님에 이르러 영생의 무극대도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운 조희성님이 수운 최재우 선생의 시천주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답변: 수운의 시천주 사상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금운의 시천주 사상은 무극대도의 완성으로서 영생이라는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듯 모든 사람을 하느님처럼 섬기라는 해월의 사인여천(事人如天)도 시천주 사상에 뿌리를 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니 사람은 곧 하느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이라는 천도교의 중심 교리는, 그 원인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 건국의 이념(홍익인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영구적으로 이롭게 하는 방법은, 인간을 전부 하느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홍익인간의 이념이 완성되고 마찬가지로 인내천 사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수운의 시천주는 보통 하나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시대였으므로 진정한 무극

대도가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운의 시천주는 승리의(이기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에, '다시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진정한 무극대도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운 최재우 선생이 염원한 '다시개벽'인 것입니다.

질문: 보통 하나님은 무엇이며, 또 승리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변: 보통 하나님은 욕심을 불러일으켜 피를 썩게 하여 늙고 병들게 하는 마귀의 영한데 늘 억눌러 있는 인간속의 양심입니다. 반면에 승리의 하나님이란 양심의 선한 하나님의 영이 욕심을 부리는 '나'라는 주체의식(사망관세)을 쥐고 있는 마귀의 영)과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이며 또한 영생을 쟁취하신 구세주 나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소멸시켜서 없애버린 무적장수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으면 구세주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기신 하나님의 분신이 붙어있는 존 영 사진을 한 장씩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라는 것은 구세주를 마음으로 먹으라는 소리이며 구세주가 생명의 과일이니 생명의과일을 먹으려면 구세주를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뜻이요 생명의과일을 먹으니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10)7518-9981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